

겨울도시시장회 소식지

World Winter City News

한국어 요약판

2006년 4월

World Winter Cities Association for Mayors

발행: 세계겨울도시시장회

060-8611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 1 조 니시 2 초메 삿포로시
국제부

Tel: +81-11-211-2032 Fax: +81-11-218-5168

e-mail: wwcam@city.sapporo.jp

web: http://www.city.sapporo.jp/somu/kokusai/wwcam/

~중국 동북부의 겨울 도시 창춘에서 제 12 회 세계겨울도시시장회 개최~

2006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에 걸쳐 제 12 회 세계겨울도시시장회가 개최되었다. '겨울과 발전(Grow in Winter)'을 테마로 13개국 29개 도시가 참가했다.

회의 참가도시

캐나다	프린스 조지시, 르독크시
중국	창춘 시, 하얼빈 시, 자무쓰 시, 지린시, 지시 시, 치치하얼 시, 선양 시, 톈진 시, 바이인 시, 쿤밍 시, 우루무치 시, 뎬양 시, 쓰펑 시, 통화 시
에스토니아	마르두
그린란드	누크
일본	삿포로시, 센다이시, 아오모리시
한국	태백시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시
노르웨이	트롬소 시
미국	앵커리지 시
러시아	마가단 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노비 사드 시
슬로바키아	질리나 시
스웨덴	카우마르 시

시장회의

①겨울철 환경문제

먼저 개최도시인 창춘시가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문제, 도심 교통 상황, 녹화 대책 등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장회의를 통하여 참가도시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표시했다. 그 후 각 도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환경 친화적 에너지 '목질 바이오매스'~

먼저 캐나다의 프린스 조지 시가 목질 펠릿(木質 pellet) 등 목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 시스템을 소개. 목질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환경 선진국인 스웨덴의 카르마르시는 목질 펠릿(木質 pellet)의 활용 사례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점, 목질 펠릿(木質 pellet)을 도입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삿포로시에서는 지역 냉난방 시스템 소개~

일본 삿포로 시에서는 환경친화적 난방 시스템으로서, 열 공급시설에서 복수 건물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냉수, 온수, 증기를 공급하여 냉난방을 하는 지역 냉난방 시스템과 그 열원의 한 예로서 나무·종이·플라스틱의 폐기물을 이용한 쓰레기 고형연료에 대해 소개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두 시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담은 환경 보전 계획을 소개했다.

~'창춘 선언'을 채택,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일치단결~

회의 마지막 날에는 '창춘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겨울 도시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사례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 결의되었다. (사무국은 삿포로시)

②겨울철 시민 생활에 관한 과제 극복에 대하여

~독특한 겨울의 이해와 노력~

일본 아오모리시에서 냉한지의 겨울철 채소 재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추위에 잘 견디는 채소(시금치 등)를 이중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연료와 농약이 필요 없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얻을 수

창춘선언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지구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각 도시가 협력하여 해결해야하는 긴급한 과제이다.

냉한·다설이라는 기후적 특성을 공유하는 겨울 도시는 특히 겨울철 난방과 제배설, 용설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양이 많으며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지구 환경에 대한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환경 부담이 적은 도시 활동을 실현하는 것이 겨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각 도시가 최대한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세계겨울도시시장회로서 선언한다.

아울러 세계겨울도시시장회는 상기 선언의 이념을 널리 세계 겨울도시에 전하여 그 계몽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한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관광 도시에서 겨울 리조트도시로 변신~

한국의 태백시가 겨울 산의 설경과 대형 리조트 시설을 조화시켜 겨울 관광 도시로 거듭난 사례가 소개 되었다. 태백시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소위원회 보고

‘지속가능한 겨울도시 만들기 소위원회’ (사무국: 아오모리 시)는 콤팩트 시티가 도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행정 비용을 억제하는 등, 대단히 유효한 도시 계획 방법이라는 점을 보고했다.

‘테러 대책 소위원회’ (사무국: 앵커리지 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위기 관리상 상징해 두어야 하는 하나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위기관리센터의 역할, 타기관과의 연계, 관련 스태프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겨울 도시 포럼 및 겨울 견본시

‘겨울도시 포럼’에서는 ‘환경’, ‘겨울의 도시계획’, ‘관광진흥’ 등을 테마로 중국 국내외에서 30 명의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가 겨울의 도시 건설 및 겨울철 생활양식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겨울 견본시’에서는 중국 국내외에서 300명이 넘는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하였다.

참가 도시의 소감

~러시아 의 마가단 시 부시장 인터뷰~

저는 러시아 마가단시의 부시장입니다. 마가단시의 대표자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겨울도시시장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저는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치 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의가 성공리에 그리고 성대하게 개최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창춘시는 각 참가도시에 최대의 환영의 뜻을 표하였고 근면한 자세를 보여주셨으며 저는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가단 시의 대표로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세계겨울도시시장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 관심이 있으므로 시장회에 입회하면 각 회원도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창춘시와 사무국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겨울도시시장회란

세계겨울도시시장회는 “겨울은 자원이며 재산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의 겨울 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겨울에 관한 기술과 경험을 서로 배우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이전에는 북방도시시장회의라고 불렸으며 1981 년에 삿포로시가 제창하여 이듬해 제 1 회 시장회의를 개최한 것이 그 시초이다. 2004 년에 ‘세계겨울도시시장회’ 로 개칭하였다.

* 겨울 도시란?

적설 혹은 한랭한 기상조건 속에서 도시 계획을 수행하는 도시.

적설의 기준... 1년 중 적설량의 최대치가 약 20cm (8인치) 이상 일 것.

한랭의 기준... 1년 중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약 섭씨 0도 (화씨 32도) 이하 일 것.

회원도시 11 개국 19 도시(2006년 1월 현재)

북방도시시장회 회원도시	11 개국 19 개 도시	2004년 4월 현재
캐나다(1)	프린스조지	
중국(7)	창춘, 하얼빈, 자무쓰, 지린, 지시, 치치하얼, 선양	
에스토니아(1)	마르두	
그린랜드 (1)	누크	
일본(2)	아오모리, 삿포로	
한국(1)	태백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몽골(1)	울란바토르	
노르웨이(1)	트롬소	
러시아(2)	노보시비르스크, 유즈노 사할린스크	
미국(1)	앵커리지	

() 속의 숫자는 회원도시 수

주된 활동 내용

시장회의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주요 사업이며 2 년에 한 번 개최된다. 지금까지 12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도시계획, 환경, 자연재해, 제배설(除排雪) 등에 대하여 시장들끼리 직접 무릎을 맞대고, 선진 도시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 계획” 에 대한 힌트와 혹독한 기상조건을 극복하는 수단을 배워왔다.

겨울 견본시 및 겨울 도시 포럼

겨울 견본시 및 겨울도시 포럼은 시장회의와 병행 개최되는 병행사업이다.

‘겨울 견본시’에서는 개최시 및 회원도시의 기업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겨울과 눈에 관한 기자재와 제품의 전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겨울 도시 포럼’은 각분야 전문가와 학술 연구자 혹은 시민이 겨울의 생활양식과 도시 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다. 1988년의 제 3회 회의 때부터 병행 개최.

소위원회

겨울도시의 상황과 선진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 지금까지 ‘재활용소위원회’, ‘관광촉진소위원회’, ‘눈 대책 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소위원회’, ‘지속 가능한 겨울도시 만들기 소위원회’, ‘테러대책소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각각의 테마에 따라 조사 연구 성과를 정리 발표한다.

실무자 회의

회원도시의 행정실무자가 모여, 차기 회의의 테마와 시장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

활동의 성과(예)

- 스파이크 타이어 도입
- 상록수의 활용
- 가로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
- 눈과 얼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대책
- 엄동기의 도로 건설 기술
- 해수열원을 이용한 로드 히팅의 실용화
- 주택의 현관에 눈이 쌓이지 않게 하는 제설 방법을 위한 기자재 도입
- 제배설에 관한 기술 교류 및 인사교류

시장회의 홈페이지에 최신 회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city.sapporo.jp/somu/kokusai/wvcam/>)

세계겨울도시시장회는 함께 쾌적한 겨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도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11-211-2032, Fax: 011-218-5168, E-mail: wvcam@city.sapporo.jp)